

자극물의 제시방법에 따른 대인지각에서의 편파

김재숙 · 김희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The experimental bias in person perception as results of presentation method of stimulus

Jae Sook Kim · Hee 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2. 11.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dentify the experimental bias which could appear person perception as results of presentation methods (2) to find out the most desirable method in presentation of stimulus. The research was a quasi experiment and the subjects were 773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The experimental instruments consisted of a set of stimulus and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of 7-point bi-polar adjectiv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OVA(analysis of variance),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presentation orders and presentation time of stimulu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ive factors which were potency, sociality, appearance, evaluation, activity impression dimensions emerged to account for the methods of development of stimulus. Second, the presentation order of stimulus in the combination of four stimuli set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3 impressional factors(sociality, appearance, evaluation). The presentation order of stimuli in the combination of eight stimuli set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3 impressional factors(potency, sociality, appearance) and the presentation order of stimuli in the combination of eight stimuli set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memorization of stimulus and the results support the recency effect. Third, the presentation time of stimuli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2 impressional factors(potency, activity). 30 seconds presentation as well as free duration time resulted less experimental bias than 3 seconds presentation.

Key words: Presentation method, Experimental bias; 제시방법, 실험적 편파

I. 서 론

그동안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는 의복, 지각자, 착용자, 상황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김재숙과 김희숙(2002)은 같은 의복 착용자의 자극물을 가지고 측정시기에 따른 인상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김희숙과 이경희(1993)는 제시방법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Whisney, Winakor & Wolins(1979)는 사진과 선 그림으로 패션선호도의 차이를 살펴

왔다. 그 결과, 같은 의복 자극물일지라도 측정시기, 제시방법, 자극물의 구성에 따라 의복이미지와 인상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김희숙과 이경희(1993)의 연구와 Whisney, Winakor & Wolins(1979)의 연구는 제시방법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착용자의 얼굴부분을 제외한 순수 의복효과만을 측정하는 연구였다. 따라서 다양한 제시방법에 따른 인상효과에 대한 편파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그 동안 인상형성 연구에 있어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의복변인, 착용자 변인, 지각자 변인, 상황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의복착용자의 자극물의 표현방법과 제시방법에 따라 인상형성 결과가 다양한 것을 볼 때, 가외 변인의 적절한 통제실패가 연구결과에 편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즉 실험방법을 연구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의복착용자의 외모, 상황 변인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극물의 제시방법이 인상효과에 어떠한 편파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자극물의 제시방법이 착용자의 인상효과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방법의 제시로서, 대인지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파에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지각 과정에서의 편파

1) 동기적 편파(Motivational bias)

동기적 편파는 지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건 또는 타인에게 돌리는 편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기적 편파에서는 자아편파, 투영, 기타 동기편파들이 있다. 지각자가 자존감 때문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실패한 결과보다는 성공한 결과의 원인만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자아-편파라고 부른다. 투영은 지각되는 특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이 바라지 않은 특질이 인지되는 것에 대한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편파의 원인은 인식적 균형을 유지하며 정의에 대한 감정을 행동적 인과관계에 돌리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Schneider, Hastorf & Ellworth, 1979).

2) 인지적 편파(Cognitive bias)

인지적 편파는 지각자가 지각대상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각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편파이며 정보를 단순화하는 범주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지적 편파에서는 관계적 편파, 정보처리과정편파, 대

표성 휴리스틱, 돌출 효과 등이 있다.

관계적 편파는 대인지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편파로서 독립된 사건, 사물, 특성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짝지음으로써 정보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에 의하여 나타난다. 귀인과정에서 지각자는 행위자의 부정적 지각단서에 대해 행위자의 기질적 원인으로 지각하나 자신의 부정적 행동은 상황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유리하게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정보처리과정편파라고 한다. 휴리스틱(Heuristics)은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비공식적인 일상의 판단에 있어서 지각자는 복잡한 형식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단순화 시켜 도식적 처리를 하거나 빠른 해결전략을 사용한다(Tversky & Kahneman, 1974). 특히 인기, 명성, 최근경험, 특징 같은 요소의 지각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범주화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 이용하도록 작용한다(한규석, 1995). 돌출효과(Salience effects)는 여러가지 자극이나 단서 중에서 눈에 띄거나 생생한 것, 부정적인 단서가 특별한 관심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돌출 단서가 놓여 있는 배경과 비교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지적 편파이다(Schneider, Hastorf & Ellworth, 1979).

2. 자극물의 제시순서

정보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순서효과(Order effect)이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제시하는가에 따라 인상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는데 순서효과에는 초두효과와 최신평과가 있다.

현재 이 같은 순서효과를 의복을 통해 인상형성 연구를 한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Asch(1946)는 한 자극 인물에 대한 긍정적 정보가 부정적 정보가 나오기 전에 제시되면, 일반적 인상은 반대의 순서가 사용될 때보다 더 긍정적이 되었다. 초두 효과는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최종 인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Luchins(1957)는 피험자들에게 두 개의 자극 인물, 'Jim'에 대한 한 단락 짜리 묘사들을 피험자에게 제시했다. 한 단락은 'Jim'을 친절한, 사교적인, 그리고 외향적인(E)으로 묘사했고, 다른 하나는 그를 소심하고, 내향적인(I) 사람으로 묘사했다. 피험자들은 두 개의 단락을 등급매긴 피험자들은 Jim-I 보다 Jim-E를 더 친근한 사람으로 보았다. Luchins(1957)는 무엇이 I-

E 순서로 읽은 피험자들보다 E-I 순서로 읽은 피험자들이 전체적인 인상을 친근한 것으로 가지도록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 Asch(1946)와 같이 Luchins(1957)는 처음 읽은 정보가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E-I 순서로 단락을 읽은 피험자들은 I-E 순서로 읽은 피험자들보다 Jim 을 더 친근한 것으로 보였다.

위의 결과들을 볼 때, 착용자의 인상효과에서 의복 자극물의 순서를 다르게 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할 때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3. 자극물의 제시시간

자극물의 제시시간을 변인으로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행연구마다 자극물을 제시하는 시간이 통일되어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의 제시시간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도주연, 권 영숙(1992)의 연구와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1997)의 연구는 칼라유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연구였으며, 신체적 외관의 두드러짐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Lennon 과 Miller(1984)의 연구에서 의복단서는 역능성, 사회성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Lennon과 Miller(1984)의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자극물을 많이 제시(16개)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여 제시한 것으로 제시시간에 따른 인상형성연구는 아니었다. 의복의 유사성에 따른 타인에 대한 매력을 규명하기 위해 Buckley(1983)의 연구에서 다양한 의복형태는 평가성, 외모·현시성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극물의 제시시간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인상형성 연구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극물의 제시시간이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시간 간격을 길게 두지 않고 Allport(1954)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30초 동안에 상대방에 대한 지각이 거의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여 자극물 제시시간을 30초 제시, 아주 짧은 시간인 3초 제시시간과 시간을 계속 주는 자유제시시간을 사용하여 인상효과를 측정하므로 제시시간에 따른 인상효과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가설 1 : 자극물의 제시 순서는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4가지 자극물 조합에서 자극물의 제시순서는 착용자의 인상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극물의 8가지 조합에서 자극물의 제시순서는 착용자의 인상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가설 2 : 자극물의 제시 시간(3초, 30초, 자유)은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용어의 작업정의

1) 실물사진 : 실물을 중형카메라로 촬영하여 5"×7"로 현상한 사진을 의미

2) 자극물의 제시순서 : 인상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실제 자극물과 인상 효과를 평가하지 않을 모의 자극물과의 조합으로 피험자에게 자극물들을 제시할 때 인상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실제자극물의 제시순서를 각 실험 집단마다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

<표 1> 자극물의 제시 시간

제시시간	선행 연구
10초	이미정 등(1997)
20초	Lennon 등(1984),
2분 30초	Buckley (1983)
10분	도주연 등 (1992)
시간 제한없음	남미우 등(1994), 박성은 등(1995), 최 정 등(1996), 이은평 등(1996), 박종희 등(2000), 김희정 등(1993), 이미숙 등(1995), 문영보(1991), 이응희 등(1997), Delong 등(1983)

3) 자극물의 제시시간 : 각 피험자 집단마다 측정하고자하는 자극물의 노출 시간을 3초, 30초, 자유시간, 세 가지 수준으로 피험자에게 제시한 것을 의미

4) 실제 자극물 : 실험1에서부터 실험2까지 사용된 자극물로서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피험자가 평가한 다음, 실험결과에서 실제로 분석할 실제 실물사진을 의미

5) 모의 자극물 : 실험2-1과 실험2-2에서 사용한 자극물로서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피험자가 평가하지만, 실험 결과 분석에서 는 사용되지 않는 모의 실물 사진을 의미

3. 측정도구

예비실험은 의류학과를 제외한 충남대학교 남녀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0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실제 자극물을 보고 70문항, 7점 척도의 의미미분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70개의 문항을 7점 척도의 의미미분척도에 의해 예비조사 한 결과를 SPSS패키지를 이용한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해 분석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은 고유값이 1.0 미만 인 것과 요인 부하량이 .4 이하인 것을 제외시킨 총 62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항의수가 많고, 문항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높은 문항이 있어 이를 제외시킨 후 다시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 결과 고유값이 1.0 이하인 것과, 요인 부하량이 .5이하인 것을 제외한 총 49개의 문항이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문항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높은 문항을 제거한 후 주성분분석과 Varimax회전에 의해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4개의 문항이 총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1은 6문항, 요인2는 5문항, 요인3은 7문항, 요인4는 4문항, 요인5는 2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중속변인을 위한 측정도구로 결정되었다.

4. 모델선정

본 연구의 실물은 한 명이었으며, 착용자 모델 선정을 위해 20여명의 학생들을 촬영한 후, 의류학 전문가 집단에 의해 촬영된 사진들 중에서 얼굴인상 및

체형이 가장 평범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 한 명을 선택하였다. 또한 먼저 착용자의 의복을 결정하기 위해 의류학과 전공자들과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여 의복 색 변인을 통제하고자 상·하 동색(중채도, 중명도의 회색)의 투피스 한 벌을 선택하였다. 의복 선택은 여러 가지 의복 디자인 중에서 눈에 많이 띄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고자 실제로 모델이 여러 벌의 의복을 입고 중형카메라로 촬영한 후 현상된 사진을 보고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여 가장 평범한 의복을 선택하였다.

5. 자극물 제시순서

자극물제시순서는 4가지 자극물의 조합과 8가지 자극물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4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제시순서는 실제 자극물 1장과 모의 자극물 3장, 총 4장의 사진을 조합하여 실제로 인상을 평가하고자 실제 자극물을 피험자에게 첫 번째로 제시된 집단, 두 번째로 제시된 집단, 세 번째로 제시된 집단, 네 번째로 제시된 집단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8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제시순서는 실제 자극물 1장과 모의 자극물 7장을 조합하여 실제로 인상을 평가하고자 하는 실제 자극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피험자에게 제시하였고, 실험설계는 모두 피험자 간 설계로 측정하였다.

6. 자극물 제시 시간

자극물 제시시간은 피험자에 실제자극물을 시간을 제한하여 보여 줌으로써 자극물 제시 시간에 의한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실험 피험자 집단마다 실험 자극물을 보는 시간을 3초, 30초, 자유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 피험자 간 설계로 인상효과를 측정하였다.

7.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연구대상은 충남대, 공주대, 건양대, 그리고 청양도립대 남녀대학생 대상으로 편의표집 되었다. 피험자들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하므로 가의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1년 12월 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남·녀 대학생은 주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설문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작성된 즉시 회수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총 773부였다. 모든 실험은 피험자 간 설계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패키지를 이용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 변량 분석과 Scheffe의 다범위검증의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험결과 및 논의

1. 자극물의 인상차원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과정에서 자극물의 제시순

서와 제시시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극물의 인상효과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된 의미미분척도를 주성분 분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명변량이 1.0이상 되는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자극물의 인상차원은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평가성, 그리고 활동성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계수로 검증하였으며($\alpha = .827$), 전체 설명변량 비율은 68.6%이었다<표 2>.

요인1은 역능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4.47이고 18.6%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2는 사교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3.66이고 15.2%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3은 현시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3.36이고 14.0%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4는 평가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2.99이고 12.5%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5는 활동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1.98이고 8.3%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

<표 2> 본 조사의 인상차원 구조(n=773)

의미미분척도	요 인				
	요인1 역능성	요인2 사교성	요인3 현시성	요인4 평가성	요인5 활동성
	요인부하량				
강하다-약하다	.841				
결단력 있다-우유부단하다	.833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802				
논리적이다-논리적이지 않다	.780				
의욕 있다-의욕 없다	.759				
지배적이다-복종적이다	.719				
이해심 있다-이해심 없다		.797			
다정하다-다정하지 않다		.786			
이타심 있다-이타심 없다		.714			
애정 있다-애정 없다		.679			
원만하다-원만하지 않다		.671			
세련됐다-촌스럽다			.858		
매력적이다-매력적이지 않다			.815		
현대적이다-고전적이다			.813		
눈에 띈다-눈에 띄지 않는다			.771		
외향적이다-내향적이다			.547		
예의바르다-예의 바르지 않다				.827	
정숙하다-정숙하지 않다				.765	
근면하다-근면하지 않다				.743	
좋은 사람 같다-좋은 사람 같지 않다				.617	
착하다-착하지 않다				.535	
생각이 깊다-생각이 얕다				.454	
활발하다-활발하지 않다					.852
활기 있다-활기 없다					.849
설명변량	4.47	3.66	3.36	2.99	1.98
설명변량 비율(%)	18.63	15.23	14.01	12.46	8.27
총 설명변량 비율(%)	68.6				

냈다.

각 요인별 특징을 살펴보면 역능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고 독립적이며 능력 있음을 의미하며, 사교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이해심 있고 이타심 있으며 다정한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세련됐고 매력적이며 현대적인 것으로, 평가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예의바르고 정숙하며 근면하는 것으로, 활동성 요인에서는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더 활발하고 활기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극물의 제시순서에 따른 인상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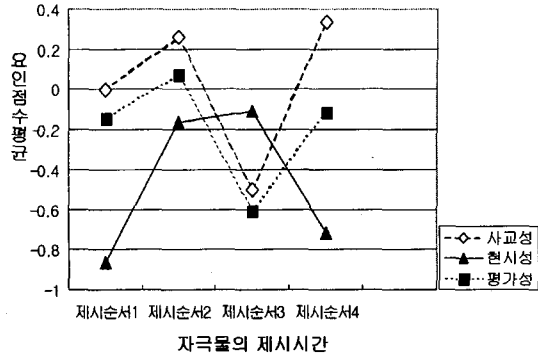
1) 4가지 자극물 조합의 제시순서가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

4가지 자극물의 제시순서의 영향력이 인상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제시순서는 역능성, 활동성을 제외한 3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상요인에 따라 제시순서가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어, 역능성, 활동성 요인은 제시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사교성, 현시성, 평가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현시성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제시순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각 인상요인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교성 요인은 제시순서2, 제시순서4에서 가장 사교적인 인상으로, 제시순서3은 가장 비사교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현시성 요인은 제시순서2, 제시순서3이 가장



<그림 1> 4가지 자극물 조합에서 제시순서에 따른 인상효과

현시적인 인상으로, 제시순서1, 제시순서4가 가장 현시적 이지 않는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성 요인은 제시순서1, 제시순서2가 가장 평가적인 인상으로, 제시순서3이 가장 평가적 이지 않는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실물의 인상과 비슷한 인상으로 평가된 제시순서를 살펴보면, 사교성 인상에서는 제시순서2와 제시순서4가 비슷한 인상으로 평가되었고, 현시성 인상에서는 제시순서2와 제시순서 3이 실물과 비슷한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자극물의 제시순서에 따른 사교성, 현시성, 평가성 인상효과와 전체적인 경향을 그림으로 보면<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자극물의 제시순서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현시성 요인은 제시순서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볼 때, 자극물의 제시순서는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sch(1946)와 Luchins(1957)의 연구결과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의 성격특질의 형용사의 순서를 다르게 하여 피험자에 제시했을 때, 제시순서에 따라 피험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쳐 지각대상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와 같이 자극물의 제시순서는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복 자극물에서도 순서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서 실험설계가 피험자 간 설계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험자 내 설계에서 자극물을 1개 이상을 피험자에게 제시할 경우에는 자극물의 제시순서를 무작위로 하여 순서효과를 배제한 설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4가지 자극물조합에서 제시순서가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 (n=178)

인상요인	사교성	현시성	평가성
F값	6.93**	9.18**	4.46**
제시순서			
제시순서1	-.004 AB	-.863 B	-.144 A
제시순서2	.258 A	-.162 A	.071 A
제시순서3	-.503 B	-.108 A	-.609 B
제시순서4	.355 A	-.716 B	-.115 AB

**p<.01, 표 안에 제시된 수치는 요인점수평균임
· A, B, C :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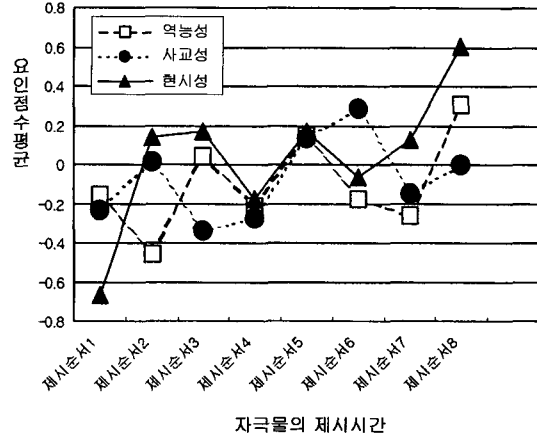
2) 8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제시순서가 인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8가지 자극물조합의 제시순서의 영향력이 인상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의 제시순서는 평가성, 활동성을 제외한 다른 3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8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의 제시순서는 각각의 인상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인상요인에 따라 8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의 제시순서가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어,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요인은 자극물의 제시순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가성, 활동성은 자극물의 제시순서효과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현시성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제시순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상요인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역능성 요인에서는 제시순서 8이 가장 역능적인 인상으로, 제시순서 2가 가장 역능적 이지 않은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제시순서 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사교성 요인에서는 제시순서 6이 가장 사교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고, 제시순서 3이 가장 비사교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제시순서 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그림 2> 8가지 자극물 조합에서 제시순서에 따른 인상효과

제시순서 8이 가장 현시적인 인상으로, 제시순서1은 가장 현시적 이지 않은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착용자 인상효과에 대한 일관된 순서의 차이는 없었지만 대체로 자극물의 제시순서가 여덟 번째로 제시되었을 때, 가장 역능적이고, 사교적이고 현시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인상형성과정에서 최신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시성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도 8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의 제시순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서 현시성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제시하는 자극물의 제시순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가지 자극물 조합의 제시순서에 따른 인상효과의 전체적인 경향을 그림으로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역능성 요인과 현시성 요인은 제시순서 8과 다른 제시순서와 착용자의 인상효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자극물을 최근에 제시했을 때 최신효과의 경향을 나타내어 좀 더 역능적이고, 현시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자극물의 제시시간이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

자극물의 제시시간의 영향력이 인상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 8가지 자극물조합의 제시순서가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 (n=423)

인상요인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F값	3.36**	2.34*	7.65**
제시순서1	-.152 AB	-.232 BC	-.666 C
제시순서2	-.456 B	.015 ABC	.138 AB
제시순서3	.043 AB	-.337 C	.168 B
제시순서4	-.209 AB	-.271 BC	-.173 BC
제시순서5	.144 AB	.136 AB	.165 AB
제시순서6	-.177 AB	.287 A	-.065 ABC
제시순서7	-.257 AB	-.147 ABC	.126 AB
제시순서8	.312 A	.003 ABC	.606 A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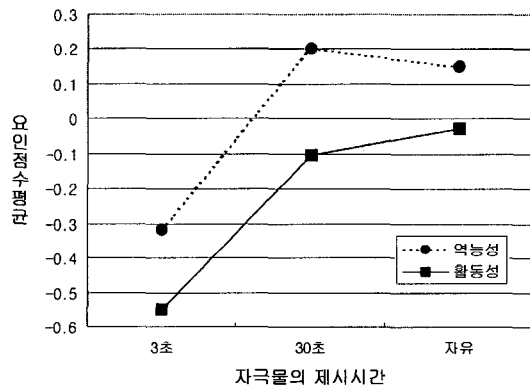
표 안에 제시된 숫자는 요인점수평균임

· A, B, C :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임

<표 5> 자극물의 제시시간이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 (n=172)

	인상요인	역능성	활동성
자극물의 제시시간	F값	4.24**	6.06**
3 초		-.316 B	-.549 B
30 초		.202 A	-.104 A
자유		.152 AB	-.026 A

**p<.01
표 안에 제시된 숫자는 요인점수평균임
A, B, C: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임



<그림 3> 자극물의 제시시간에 따른 인상효과

그 결과 사교성, 평가성, 현시성을 제외한 2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극물의 제시시간은 지각자의 인상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교성, 현시성, 평가성 요인은 자극물의 제시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역능성, 활동성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인상요인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역능성 요인에서는 피험자에게 자극물을 30초로 제시한 경우가 가장 역능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고, 자극물을 3초 제시한 경우는 가장 역능적이지 않은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자극물을 30초 제시한 경우와 자극물의 제시시간을 자유로 제시한 경우에 가장 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고, 자극물을 3초 제시한 경우는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활동성 인상에서 제시시간을 30초 이상 제시했을 때 실물의 인상과 비슷한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자극물을 제시한 시간을 자유롭게 제시한 시간과 30초를 제시한 시간은 전체적으로 같은 인상을 보이고 있으나, 3초를 제시한 경우에는 다른 인상으로 평가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상형성 연구에서 자극물의 제시시간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제시시간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인상형성연구에서 자극물의 제시시간을 30초 정도는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를 볼 때, 자극물의 제시시간이 지각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지각대상의 인상이 제시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극물 제시시간에 따른 역능성, 활동성, 인상효과의 경향을 그림으로 보면<그림 3>과 같다.

특히 자극물을 30초 제시한 경우와 자극물을 계속 제시한 경우에 평가되는 인상효과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볼 때, 사람의 인상평가는 30초에 거의 이루어진다는 Allport(195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극물 제시시간을 30초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제시시간에 따른 인상효과의 편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자극물의 제시방법을 다르게 하여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자극물의 제시방법에 따른 대인지각에서의 편파를 조사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 자극물 조합에 따른 제시순서는 역능성, 활동성을 제외한 사교성, 현시성, 평가성, 3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시성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4가지 자극물 조합의 제시순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8가지 자극물의 조합에 따른 제시순서는 평가성, 활동성을 제외한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3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시성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8가지 자극물 조합의 제시순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역능성, 현시성 요인에서는 최신효과의 경향이 나타났다. 제시하는 자극물의 수가 많아질 경우 인상형과정에서 최신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극물의 제시순서는 지각자의 인상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자극물의 제시순서에 따른 편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인상형성 연구에서 피험자 간 설계를 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지만 피험자 내 실험설계에서, 자극물의 수가 많아질 경우는 자극물의 제시순서를 무작위로 하여 순서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연구의 편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자극물의 제시시간은 사교성, 평가성, 현시성을 제외한 역능성, 활동성, 2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극물의 제시시간은 지각자의 인상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편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자극물을 3초 제시한 집단은 30초 제시한 집단, 자유롭게 제시한 집단과 인상효과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30초 제시한 집단과 자유롭게 제시한 집단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서 자극물의 제시시간은 30초 정도는 제시되어야 실험의 편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극물의 제시방법은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편파의 한 종류가 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Schneider 등(1979)의 6단계 대인지각과정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서 의복, 외모, 지각자, 상황과 같은 변인뿐만 아니라 자극물의 제시순서, 제시시간과 같은 자극물의 제시방법인 실험방법의 차이가 인상효과의 연구결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지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파에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가지 자극물을 가지고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조사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의복의 종류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효과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실험들은 단일설계로만 이루어졌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교차설계를 함으로써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재욱, 김희숙. (2002). 착용자 인상효과의 시간적 안정성. *복식문화연구*, 10(1), 28-36.
- 김희경, 이경희. (1993). 의복자극물과 제시 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3), 428-435.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311-326.
- 도주연, 권영숙. (1992).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 요인과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6(30), 243-250.
-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은, 임숙자. (1995). 의복의 적절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학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3), 264-267.
-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 의복의 형태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8), 1177-1186.
- 이미숙. (1995). 의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체형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1997). 의복 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 1287-1296.
- 이용희, 강경자. (1997). 원피스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폭·길이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6), 105-115.
- 이은령, 이경희. (1996). 실루엣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31-646.
- 최정, 이경희. (1996). Computer Simulation을 이용한 의복의 착시효과와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5), 915-929.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uckley, H. M. (1983). Attraction toward a stranger as a linear function of similarity in d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1), 25-34.
- Delong, M. R., Salusso, Deonier, C. & Lantz,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1(4), 327-336.
- Lennon, S. J. & Miller, F. G. (1984). Saliency of physical appearance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95-111.
- Luchins, A. S. (1957). *Primacy-recency in impression formation*. In C. Hovland(ed.), *The order of presentation in persuasion*,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Schneider, D. J., Hastorf, A. H. & Ell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 (2nd ed.). Mass., Addison-Wesley.
- Tversky, A. & Kahneman, D. (1971).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 *Science*, 185, 1124-1131.
- Whisney, A. J., Winakor, G. & Wolins, L. (1979). Fashion preference : Drawings versus photograph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2), 138-15.